

HEADLINE NEWS

유럽 최초로 '소음지도' 제작 (파리)

프랑스 파리市는 교통 소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음공해 해결을 위해 유럽의 대도시 중 처음으로 '소음지도'를 발간했다. 이는 2002년 유럽의회에서 유럽 각 대도시에 요구한 '도시 시설 유발소음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市는 2000년에도 '소음지도'를 제작한 바 있으나, 이는 하루교통량 5천대 이상의 도로 교통부문을 다룬 것으로, 市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음지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평균 소음치로 작성된 이 '소음지도'는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市전체의 도로소음을 2차원 및 3차원적으로 시각화해, 동서남북 4방향으로 도로와 접한 건물면에 미치는 소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외곽순환도로의 지붕 공사, 경전철, 녹지대, 시가화 지역, 도로포장 교체, 방음벽 등 소음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도시 정비의 평가가 가능하다. 현재 市는 1999년에 만들어진 소음관측반이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번 지도는 市의 도시생태 및 기술 서비스국에서 제작했다.

(www.paris.fr/FR/Environnement/bruit/carto_bruit/discours.htm)

HIGHLIGHTS

도시관리

- 태풍 대처방안 홍보 강화 (플로리다주: 텔러해시市)

도시환경

- 공사기간 단축과 전면녹화 효과가 있는 사면(斜面) 신공법 (동경)
- 가로수 상태 조사 및 도시 재녹화 사업 착수 (워싱턴 D.C.)

도시교통

- 버스 운전자에게 'smile' 예절교육 실시 (런던)
- 사고·고장 차량 응급조치를 위한 순찰트럭 운영 (퀵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市)
- 자전거도로 및 도보 확충을 위한 도로 다이어트 추진 (애틀랜타)
-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가변 전자 제한속도 표시기 설치 (올랜드)

사회복지

- 중년 여성을 위한 유방암 무료 검진 실시 (파리)

행.재정

- 탁월한 경영성과를 보인 지방공사의 공채등급 상향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市)
- 소기업지원센터를 지역예술작품 판매전시장으로 활용 (오스틴)
- '세계 물의 날' 기념 물퀴즈풀이 경주행사 개최 (파리)
- 시민 축구대회 개최 (파리)
-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을 위한 문화축제 개최 (오스틴)

도시 관리/도시 환경

세계도시동향

① 태풍 대처방안 홍보 강화 (플로리다주: 텔러해시市)

미국 플로리다주는 허리케인 시즌에 대비해 최근 이에 대한 대처방안 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이는 대피령이 내려질 경우 그동안 일반 시민들이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혹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대피하는 데에만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는 우선 웹사이트를 통해 긴급상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최근에 설치된 대피소의 위치, 비상식량 준비요령 등을 제시해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지역의 피해 예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긴급상황 발생시 대피요령과 대피경로 등의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차량이동에 대비해 실시간 대피경로최적화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으로 도로정보 안내판을 활용할 예정이다.

(www.disasternews.net/news/news.php?articleid=1880)

② 공사기간 단축과 전면녹화 효과가 있는 사면(斜面) 신공법 (동경)

최근 일본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system engineering)이 도로 건설에서 나타나는 사면(斜面) 등의 ‘땅미끄럼 방지’ 공법을 개발, 공사기간을 반으로 단축하고, 공사 후 사면(斜面) 전체를 녹화(綠化)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공법은 종래의 콘크리트와 비교해 설치면적이 작고, 철제 구조재(KIT 프레임)를 사용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므로 재해방지와 자연경관 보호의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이제까지는 사면(斜面) 전체에 격자형으로 콘크리트를 바르는 공법이 주류여서 경관악화가 문제였는데, 이 공법은 설치면적을 지표면적의 약 20%로 하고, 사면(斜面)의 전면을 녹화할 수 있다. 두께는 5~10cm로 얇고, 초목이 자라면 프레임은 완전히 숨겨진다. 또한, 설치시 콘크리트를 바르는 데 필요한 철골의 비계와 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1,000평방미터 규모의 공사 기간이 25일에서 13일로 단축된다. 틀을 설치하는 전문가도 필요 없고, 작업인부도 절반 정도면 가능하다. (日本經濟新聞, 5. 20)

도시 환경/도시 교통

세계도시동향

3] 가로수 상태 조사 및 도시 재녹화 사업 착수 (워싱턴 D.C.)

최근 미국 워싱턴 D.C.의 'Casey 수목 기증재단'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市の 가로수 30%가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용 가능한 토지의 20%는 나무가 아예 없거나 죽은 나무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사유지나 연방정부의 토지는 제외하고 보도와 거리에 심어진 나무들만을 대상으로 작년 여름 자원봉사자들이 도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105,914그루의 나무를 조사한 것을 토대로 했다. 조사 결과, 전체 나무의 32%는 아주 양호한 상태, 39%는 양호한 상태였으며, 전체 나무의 39%는 단풍나무, 31%는 떡갈나무, 10%는 느릅나무로 나타났다.

Casey 재단은 1973~1993년 사이에 질병과 손상, 관리소홀로 인해 市の 나무들이 40% 이상 사라졌다고 보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향후 10년 동안 도시 전역에 23,000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또한, 이에 관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해 도시 전역에서 19차례의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각 區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 재녹화 운동을 돕는 학생 인턴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www.washingtonpost.com/wp-dyn/articles/A39277-2003Apr25.html)

4] 버스 운전자에게 'smile' 예절교육 실시 (런던)

앞으로 영국 런던의 모든 버스 운전자들은 6개월 과정의 예절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의 타이틀은 'A smile costs nothing'으로 알려졌는데, 승객을 대하는 에티켓과 도로에서 보행자와 승용차 운전자를 배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Metro, 5. 29)

5] 사고·고장 차량 응급조치를 위한 순찰트럭 운영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市)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교통부는 고장 및 사고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견인능력 및 장비를 갖춘 트럭이 고속도로상을 순찰하도록 하는 「Freeway Service Patrol」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 트럭은 휘발유, 부동액, 오일 및 기타 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고장 및 가벼운 사고를 당한 차량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교통혼잡 원인 분석결과에 따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이미 일부 대도시에서 시행 결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교통당국은 민간 업체와 순찰트럭 운영계약을 체결해, 주로 오전 및 오후 혼잡시간대에만 운영할 계획이다. 이 순찰트럭은 빠르면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며, 2대의 순찰트럭을 운행하는 데 연간 약 25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ww.nj.com/news/expresstimes/pa/index.ssf?/base/news-5/1051779857166850.xml)

6] 자전거도로 및 도보 확충을 위한 도로 다이어트 추진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市는 기존 도로의 차선 수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를 확충하는 「Road-diet」 계획을 최근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인 'Atlanta Bicycle Campaign'과 'PATH Foundation'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 계획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여건이 열악한 市의 시민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계획은 우선적으로 도로 차선 수에 비해 교통량이 적은 도심 도로구간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는 도심 및 부도심 지역의 주요 명소를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 한편, 현재 애틀랜타 대도시권 전역에서는 곳곳에 자전거/보행 산책로가 설치되는 등 녹색교통에 대한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www.ajc.com/business/content/business/horizon/saporta/050503.html)

도시교통/사회복지

세계도시동향

7]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가변 전자 제한속도 표시기 설치 (올랜드)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를 통과하는 4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가변 제한속도 표시기가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가변 제한속도 표시기는 기존의 속도제한 표지판과는 달리 전자장비로 가동되며, 날씨 및 교통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한속도를 산정해 운전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번 계획은 「iFlorida」라는 첨단교통시스템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총 30만 달러가 소요된다. 주교통당국은 시범운영 후 운전자의 반응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당국은 가변 제한속도 표시기를 통해 상황에 따라 통행속도를 조절, 교통사고 및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변 제한속도는 유럽 등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통행시간을 15% 단축시키고 교통사고는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가 있다고 한다.

(www.sun-sentinel.com/news/local/florida/orl-asecsigns21052103may21,0,6239818.story?coll=sfla-news-florida)

8] 중년 여성을 위한 유방암 무료 검진 실시 (파리)

프랑스 파리시는 시에 거주하는 50~69세 여성 중 최근 2년 동안 유방암 검진을 받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무료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여성은 지역의 일반의나 부인과 의사에게 등록하면 된다. 시의 이번 정책은 유방암을 초기에 진단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조기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유방암에 대한 주기적 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이다. 프랑스에서는 해마다 42,000여명이 유방암에 걸리고 있다.

(www.paris.fr/FR/Solidarite/actu_depistage_cancer_sein.htm)

9 [] 탁월한 경영성적을 보인 지방공사의 공채등급 상향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애너하임 전기수도공사(Anaheim Public Utilities)’는 지난 100년 이상 이 지역에 전기와 수도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한 공기업이다. 최근 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사는 이 공사(公社)의 전기부문 공채등급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전기가격의 안정화와 경쟁성의 확보, 재무성과의 탁월성, 그리고 전략계획의 성공적 집행에 의한 서비스구역의 유지와 예비전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공기업도 경영성과만 탁월하면 공채발행 여건이 상향 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www.anaheim.net/utilities/NEWS/2003ratings.htm)

10 [] 소기업지원센터를 지역예술작품 판매전시장으로 활용 (오스틴)

미국 오스틴시는 지역예술작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아시아계 상공회의소, 흑인계 상공회의소, 히스패닉계 상공회의소 등 3개 단체와 협력해, 소기업 지원센터의 사무실 벽을 전시공간으로 바꾸고 예술작품 판매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문화의 생동감’이라는 주제로 개막기념 전시회를 무료로 개최할 예정인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지역내 여성예술가 6명을 포함한 개성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시는 소수민족의 상공회의소와 협력하는 것이 지역예술작품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기업친화적이면서 또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예술친화적인 독특한 도시의 상(像)을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www.ci.austin.tx.us/news/2003/smbr_lost_art.htm)

④ '세계 물의 날' 기념 물퀴즈풀이 경주행사 개최 (파리)

2003년 '세계 물의 해'를 맞아 프랑스 파리市는 6월 14~15일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물 경주'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팀과 전문가팀으로 나뉘며, 가족팀은 노트르담 성당에서 출발해 Saint Michel 분수를 지나 Innocents 분수까지 이어지는 약 2km의 코스, 전문가팀은 노트르담 성당에서 출발해 Buttes Chaumont 공원까지 약 10km의 코스로 진행되었다.

경주 방식은 노트르담에서 받은 물과 관련된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며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가족팀의 문제는 물에 대한 자연 지식, 도시에서 물을 사용하는 방법, 우리의 몸과 물 등 물과 관련된 일반상식과 관련된 것으로, 중간에 그림 퍼즐이 들어가 있다. 전문가팀의 문제는 이보다 더 복잡한 역사와 과학기술에 대한 문제로 구성되었다. 市는 참가팀의 점수와 등수를 공개한 후 최고 득점자에게 별도의 시상할 예정이다.

(www.paris.fr/fr/actualites/annee_mondiale_eau/rallye_eau.htm)

④ 시민 축구대회 개최 (파리)

프랑스 파리市는 시민 축구대회를 6월 말에 개최할 계획이다. 축구대회는 만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참가팀은 남성, 여성, 혼성으로 구분된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시청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 市에 제출하면 된다. 한 팀은 선발출장선수 7명에 후보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경기시간은 15분이다. 예선전은 6월 21일 市에 있는 5개의 축구경기장에서 열리며, 이 중 16개 팀을 뽑아 6월 28일에 본선대회를 연다. 결승전은 2003~2004년 체육시즌이 시작될 때 열릴 예정이다.

(www.paris.fr/FR/sport/actualites/paris_tout_foot.htm#2)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을 위한 문화축제 개최 (오스틴)

미국 오스틴市에서는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을 위한 전통의 달(Asian/Pacific American Heritage Month)’을 기념해, 여러 나라들을 대표하는 음식과 놀이를 선보이는 문화축제가 6월 6일에 열렸다. 市에 있는 ‘아시아·태평양계 노동자 네트워크(Asian-American Employee Network)’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매달 진행되는 국가별 문화행사의 일부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양한 놀이들이 선보였는데,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하와이의 전통춤 공연이 펼쳐졌다. 그리고 제한된 양이지만 중국과 베트남의 볶음밥, 베트남의 야채샐러드, 한국의 불고기, 필리핀의 판싯(Pancit), 인도의 탄두리(Tandoori), 치킨카레 등 각 나라의 전통음식도 무료로 제공되었다.

이러한 국가별 축제는 의회에서 지정해 197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990년부터 1개월 동안 진행되는 축제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을 위한 전통의 달에는 커뮤니티 페스티벌, 정부가 후원하는 활동, 그리고 학생을 위한 교육적인 행사 등이 진행된다.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은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은 캘리포니아, 하와이, 텍사스, 일리노이, 뉴욕 등 5개 州에 집중해 있다.

(www.ci.austin.tx.us/news/2003/asian_pacific)